

주일 예배 순서

- 부활 후 제 5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47:1-7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21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8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과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고백하는 믿음이 열매 없는 종교가 아닌 사랑으로 열매 맺되, 말과 혀로만이 아닌 진실과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더욱 풍성케 하시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국과 열방 가운데 임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히브리서 12:2-3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이유”

- 봉 헌(offering) 6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 offering) 539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성도 간의 기도와 교제(전화, 카톡)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이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코로나 백신을 통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묵상〉 히브리서 12:2-3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1.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조차 마음에 두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에게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기꺼이 참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2.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와 같은 의미의 바라봄이 아니라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결코 건성이나 형식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를 대해 주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태도를 보였는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아들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도, 수치심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생명과 구원에 직결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장대에 달아 놓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만 자신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